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닷을 올리며 독서, 도서관, 문화 복지의 전진 기지

글_한상완

나는 김점선을 참 좋아한다. 그녀의 그림과 글을 너무 좋아한다. 남정네인 내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그녀를 좋아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러나 책과 TV라는 매개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녀가 쓴 책 《김점선 스타일》에는 장영희를 인터뷰하고 그린 그림과 사진이 실려 있다. '언어를 타고 날아오르는 여자'란 제목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있다.

“영문학자이자 번역가인 장영희는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좋아한다. 부러워한다. 의존한다. 때때로 나는 그의 지식에 의존하고 싶어 한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다. 장영희도, 그 누구도,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의 반도 못 읽고 죽는 게 인간의 운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은 그 이외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게 하는 힘이 있다. 어떤 한 조직에는 이렇게 책 많이 읽는 인간이 일정량 있어야 한다. 그런 인간이 없는 조직은 공허하고 매력이 없다.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없단 말이다. 매력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곧 소멸한다.”

그녀의 직선적이고 통찰력이 번뜩이는, 내뱉는 듯한 언어의 구사와 강렬하게 흐르는 의지가 배어있는 글이다. 화가 김점선 만큼 책에 흘러 있는 사람도 드문데, 그녀가 장영희 교수를 그렇게 묘사한 글을 읽으면서 새삼 책과 독서와 이런 것의 보금자리일 도서관과 그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인류 문화와 문명의 보고인 도서관

책을 읽는 현상, 그 일, 그 행위의 소중함과 위대함 등은 아무리 찬탄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점을 예서 강조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책과 세기가 변전하면서 태어난 제2, 제3의 미디어 즉 뉴 미디어를 포함한 도서관이란 사회 문화적 장치에 대하여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다.

인류가 창안해낸 장치와 기구 중 도서관만큼 세기를 거듭하면서도 변영한, 가치가 시들지 않고 인간에게 빛을 발하는 것이 또 있는가. 인류의 문화나 문명은 생각과 사고 그리고 번뜩이는 창조와 창의력의 보고인 도서관이란 데서 새로 태어나기도 했고 온존되기도 하였음을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다.

그 도서관을 사회나 정부가 잘 가꾸고 활용하면서 국민에게 편안하게, 사랑받게 분위기를 만든 나라는 선진국이다.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도서관을 내 집 드나들 듯 사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시민들은 삶의 질을 스스로 높이며 만족스러워 한다.

국민이 어찌 후진적이라는 레테르를 붙이며 살겠는가? 도서관을 내 집 드나들 듯 사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의 시민들은 삶의 질을 스스로 높이며 만족스러워 하는 현상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런 아름답고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정책적, 국민적인 합의를 아직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탄생

정부와 국회는 지난 해 도서관계에 획을 긋는 큰일을 해냈다. 다름 아니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도서관법>을 작년 9월 8일 국회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문화관광광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의 발의로 진통을 겪던 과정을 일단락 짓고 입법에 성공하였다. 이 법은 독서진흥법과 도서관법을 따로 분리하여 시대의 요청과 미래지향적 지평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큰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장 획기적인 것은 동법 제 12조에 규정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탄생시킨 점이다. 대통령 직속의 이 위원회는 도서관

과 독서에 관련되어있는 12개 부처의 장관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를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다.

이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의지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법적장치가 미국과 영국의 제도에 못지않은 선진적인 것임을 보고 드린다.

이 고고의 성을 울리며 태어난 위원회는 6월 12일자로 위원장과 민간인 전문가인 도서관계 인사, 출판계 인사, 법조계 인사 및 언론계 인사를 포함한 13명을 대통령이 위촉하면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와 함께 업무를 담당할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단장을 포함하여 정책기획팀, 제도개선팀, 정책조정팀의 3개팀으로 구성하여 함께 발족한 바 있다. 이러한 준비, 즉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과 기획단 직원의 파견(교육인적자원부, 국회도서관등에서 파견)과 임용 절차를 거쳐 지난 달 19일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를 모시고 관계 정부 부처의장, 그리고 도서관계, 출판계 인사와 처음 위촉된 위원들을 모시고 현판식과 업무를 시작하는 간략한 행사를 가짐으로써 역사적인 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이 뜻을 올리게 되었다.

이익집단에서 벗어나 문화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정책 수립, 실행

위원회가 할 일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 도서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며,
-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를 유기적으로 수립 유지하고,
- 각급 도서관의 운영을 평가하는 일,
- 국민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자료접근에 대한 격차를 해소토록 하며,
- 도서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선진적으로 양성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며 시행하는 일 등이다.

우리 위원회와 기획단은 이러한 정책 과제와 국민이 위원회에 기대하는 열망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도서관계는 지난 50여년 동안 이런 위원회나 정부 기구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때로는 정부당국에 직접적인 요청으로, 전국도서관대회에 모이는 2,000여 명의 도서관인들이 한 목소리로 정책 건의를 주무부처에게 해왔는가 하면, 이러한 주제로 정책토론회, 학회에서의 학문적 연구와 발표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정부의 획기적 대안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시작은 반이라 했듯, 우리 위원회는 그 소임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 일은 비단 도서관계라는 좁은 의미의 일이라든지 이익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때, 출판문화의 창달과 도서관계의 발전을 추진하여 민주 복지국가가 지향하

는 나라를 세우고, 국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도서관 문화를 꽃피워 출판계와 상생의 문화를 일구어낸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NCLIS(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가 30여 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그 행정기구인 IMLS(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와 함께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의 경우 양서로 평가되는 책이 출판되자마자 전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서 일시에 5만 권 정도의 서적을 구입하여 문화 콘텐츠를 대표하는 출판문화의 창달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는, 우리의 현실 수준에 맞게 접목시킬 필요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우수한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이의 시행을 통한 문화선진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큰 축을 이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그 출발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문화의 세기이며 지식정보의 기반사회에 발 빠른 정책 대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는 세계 경제 10~11대 대국으로 비약한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도서관 문화를 발전시키는 생동하는 엔진의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반국민들로부터 고급의 전문가 집단에게까지,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며 도서관 문화에 흠뻑 빠질 이용자부터, 1년에 15~20억 건의 전 세계 정보생산의 결과를 손쉽게 선별적으로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을 만들어,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는 도서관 문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했거나 등한시 하였던 저간의 인식을 국민들도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내가, 우리가 즉 구성원이, 아니 모든 국민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꼭 필요하고도 가치가 있는 필수적인 학문, 예술, 여가의 장치로, 독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복지의 기지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또한 기대한다.

김점선의 “책을 읽었다는 사실은 그 외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언어를 타고 날아오르는” 장영희 교수가 암과 투병하면서 쓴 주옥같은 책에서도 희망을 모든 국민에게 불어넣어주었던 《축복》 같은 아름다운 책을 또 다른 사람들이 창작해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진진기지가 도서관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 함께 음미하면서 말이다. **김**

한상완님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원주 캠퍼스 부총장, 한국도서관협회장을 역임했다.